

“최저임금 여파 농업소득 8.7% 감소 전망”

농촌경제연구원 ‘2018 농업 보고서’…인건비·농자재값 상승
쌀값 오르고 계란값 안정…농업인구 줄고 고령화 가속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농업소득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농업소득과 농가인구도 줄어든다고, 고령화 현상도 점차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이 발표한 ‘농업전망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농업소득은 지난해 1110만원에 비해 8.7% 감소한 1014만원 내외로 전망됐다.

이 같은 현상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농업인들이 지출하는 농업임금이 13% 증가하고 국제유가 상승으로 농사에 투자하는 투입재 가격도 2.1% 오르면서 농업경영비 자체가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

이다.

올해 농사를 지을 때 투자해야 할 농업경영비는 2256만원으로 전년도 2181만원에 비해 3.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28.7%에서 올해 25.5%로 3.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가인구는 지난해보다 2.1% 감소한 239만명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농가호수도 1% 줄어든 105만호로 추정됐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농가인구 비중도 전년에 비해 1.0%포인트 증가한 42.2%로 갈수록 농촌지역의 고령화 현상은 심화되

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올해 쌀값은 쌀 생산조정제 시행 영향으로 쌀 공급 과잉 구조가 개선되면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18양곡년도 단경기(7~9월) 산지 쌀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2%, 수확기보다 3.8% 상승한 15만9000원(80kg)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제적인 시장격리 물량 확대 발표로 2017년산 수확기 가격이 전년도보다 18.0% 상승, 2017년 쌀 생산액은 전년도보다 8.8%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원은 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지 원 사업) 목표 면적이 계획대로 달성되면 2019양곡년도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6.2% 감소한 372만5000t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생산량이 줄면서 쌀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병아리 입식 증가로 올해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7324만 마리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계란 생산량은 전년도보다 14.9% 증가해 계란 산지가격도 전년 대비 26.3% 하락한 1249원(특란 10개)으로 전망됐다.

한우 도매가격은 5.2% 상승한 1kg당 1만7579원으로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돼지는 사육 마릿수가 늘어 도매가격은 9.4% 하락한 1kg당 4481원으로 예상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올해 오렌지와 열대 수입과일 소비량은 증가하는 반면에 국내 과일 소비는 정체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기적으로 과일 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36.60 (+34.49) ↓ 금리 (국고채 3년) 2.19% (-0.01)

↑ 코스닥 894.43 (+21.34) ↑ 환율 (USD) 1070.20원 (+0.10)

임원 평균 46.6세…더 젊어진 ‘효성’

24명 정기 임원 인사

효성은 김치형<사진>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총 24명 규모의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부사장은 터키법인장, 스파텍스PU장을 역임한 글로벌경영전문가로, 2015년부터 베트남 동나이법인장을 맡아 효성 스파텍스의 글로벌 1위 지위를 확고히 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올해 승진 규모는 지난해 34명보다 줄



었지만 신입 임원 평균 나이가 46.6세로, 지난해보다 3년가량 젊어졌다.

성과주의 원칙에 따라 섬유, 산업자재, 중공업, 화학 등

핵심 사업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끌고 책임경영을 실천한 인사,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회사의 성장을 이끌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사들이 승진 대상에 포함됐다.

/연합뉴스

금호타이어 노조 내일 총파업

“정리해고 등 노동자 일방 희생 강요”…3500여명 상경 투쟁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외부자본 유치를 통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예고대로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2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지회에 따르면 24일 오전 KDB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구조조정저지, 자구계획안 폐기’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결의대회에는 광주·곡성·평택공장 조합원 등 3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노조는 또 결의대회와 동시에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오전 작업조를 시작으로 24시간 파업을 벌인다.

노조는 결의대회에 앞서 낸 보도자료에서 “생산직 191명의 정리해고와 임금 총액기준 30% 삭감, 일반직 인원 감축 등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내용이 자구계획안에 담겨있다”며 “경영실책에 대한 원인 분석은 빠져 있고, 오직 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대성기자bigkim@



광주세관 ‘FTA 기업지원정책 설명회’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양승관)은 23일 광주본부세관 11층 대회의실에서 수출입기업 및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FTA 기업지원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17년도 FTA 활용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추진하는 기업지원정책 등을 설명함으로써 중소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리

를 마련하였다.

광주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는 수출기업의 FTA 활용 지원, 해외통관 예로해소, 무역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사업 추진, 이동상담센터 운영을 통한 찾아가는 컨설팅 제공 등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삼성 무풍에어컨 풀 라인업 북미 공략 시카고 ‘AHR엑스포’ 참가…첨단기능 보여



삼성전자가 22일(현지시각)부터 24일까지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리는 ‘AHR엑스포’에 참가해 ‘무풍에어컨’과 다양한 공조 솔루션을 선보인다.

미국공조냉동공학회(ASHRAE)가 주최하는 AHR엑스포는 85년의 역사를 보유한 북미 최대 공조 전시회다. 세계 2000여개 업체가 참가해 관람객들은 공조 분야 최신 기술과 제품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 가정용 벽걸이형에서부터 1Way·4Way 등 다양한 카세트형(천장형 실내기) 상업용 제품에 이르기까지 ‘무풍에어컨’ 풀 라인업을 전시한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다주택자 추가 대출 막는다

31일부터 새 DTI 적용…하반기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다주택자의 돈을 묶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차 금융위원회를 열고 신(新) DTI 시행과 관련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 새 DTI는 대출자가 보유한 부채를 지금보다 포괄적으로 반영한다.

현행 DTI에선 부채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와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만 포함했지만, 신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을 부채에 추가해 기존과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부채로 본다.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 받으면 DTI가 평균 30%가 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보유자가 추가대출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올 하반기에는 총채적상환능력비율(DSR)도 도입된다. DSR은 채무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이자와 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수치다.

이달 말 새 DTI가 도입되고 올해 하반기 DSR까지 도입되면 전반적으로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져 가계부채의 급증세가 둔화하고 빚내서 집 사려는 사람도 줄어들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가임대료 5% 이상 인상 제한

26일부터 상한율 9%→5%로…환산보증금 인상 임차인 보호

이달 26일부터 상가 임대료를 한 번에 5% 이상 올릴 수 없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상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 기대가 나온다.

정부는 2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상가 임대료 인상을 상한율 9%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령은 이달 26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상가 임대료 인상을 상한율 2002년 12%로 정했다가 2008년 9%로 한 차례 낮춘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저물가와 저금

리 기조,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인상을 상한율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임대료 인상을 상한율 적용받을 수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도 확대된다. 개정령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지역에 따라 50% 이상 대폭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환산보증금 기준 상향 조정으로 지역별 주요상권 상가 임차인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게 된다. 특히 기준액이 2억1000만원으로 서울은 지역에 따라 전체 임차인의 94~95%가 보호 대상이 될 것으로 법무부는 추산했다.

/연합뉴스

Aroma Life
www.aroma-life.co.kr

「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갖춘 」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속옷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를 받은 유니크한 디자인과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옥각형)사용 및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효과)으로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해 주고 건강을 생각한 속옷입니다.

아모리이온

브라+슈트+거들
4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이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아실리 바디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

비비드 아모르

러닝+팬츠
2단 일체형 남성용 슈트

대표전화 1588-2219